

# 自然公園内に 있어서의 老巨樹 保護對策

崔 榮 典

식물자원 산업연구소장

科学文明의 高度成長을 驅歌하는 20世紀에서 人間은 自然앞에 能力의 限界를 自認하면서 속연해질수 밖에 없는것은 自然이 保護하는 者에게는 恩惠를 베풀지만 破壞하는 者에게는 報復을 서슴치 않기 때문이다.

急進的인 産業化 내지 工業化는 全国土의 1日生活圏을 要求하게되어 自然環境의 파괴는 不可避한 要求이기에 이를 배제할수는 없다.

다만 人間의 生存 向上을 위해 自然資源의 利用 開發은 당연한 것이라 할 지라도 開發이 바로 파괴를 뜻해서는 안될것이다. 自然狀態를 保存하면서 高度의 利用을 圖謀하는것이 당면 과제이며 이는 人類文化에 기여할뿐 아니라 후손에게 우리의 遺産을 물려줄 義務의 所在라고도 할 수 있다.

公園法에는 公園은 自然風景地를 保護하고 國民의 保健·休養 및 情緒生活의 向上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하며 국가나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保護育成하여 自然의 秩序를 維持回復하는데 正성을 다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國民의 適正한 利用을 위하여 조화있게 開發 管理해야함을 명시한것이다.

한번 파괴 훼손된 자연의 回復은 長期間을 要하는 만큼 開發에 따르는 補完의 研究도 수반되어야 한다.

自然破壞의 要因은 開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人口增加와 都市集中化 現象에 따른 제한어린도 무시할수 없는 要因中の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國民생활의 向上은 아파트라는 高層化된 住宅여건의 제한된 空間에서 自然과 동떨어진 메마른 日常生活이 自然을 찾아 余暇를 最大限으로 활용코져하는 慾求로 發展하여 山이나 바다를 찾게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있겠으나 이의 대상이 自然公園으로 귀착지어 질때 限定된 地域에 산을 찾는 봄. 가을이라든가, 바다를 찾는 여름철의 季節的인 人口集中이나 또 週末같은 曜日的인 過密集中現狀이 빚어내는 被害도 결코 가볍다 할수없다. 이것은 1日生活圏의 혜택이 가져다준 즐거운 비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누구도 폭 넓은 레저활동을 나무랄수 없기에 自然이 주는 人性의 情緒醇化를 높이 평가해 마지않으며 健全레저로 권장해오고 있다.

다만 自然에 대한 人間教育의 不在가 낳는 被害는 看過할수 없는 現實로 表出되고 있다.

自然을 利用하는 올바른 方法을 教育하여 自然을 참되게 바로 즐길수 있는 心性의 涵養이 이룩될때 모든 対象을 사랑하는 마음이 社會의 犯罪까지도 減少시키는 결과를 기대해 볼수도 있을것이다.

레저인구의 증가는 매년 20%를 상회하는 추세로서 가히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찾는 그곳에 우거진 숲의 그늘이 있

고 싱그러운 공기와 맑은 시냇물의 흐름이 있다면 都市公害를 脱出한 보람을 만끽할 것이지만 自然은 工產品이 아니기에 하루아침에 울창한 숲이나 秀麗한 老巨樹가 만들어 질 수 없음을 自覺하여 나와 너 우리모두를 위해 現存한 自然公園을 保護 育成하여 維持回復을 꾀하는 保存策의 강구가 시급히 요망된다.

自然公園内の 標高가 높은 지역의 植生帶나 自然景觀은 損傷을 적게입어 나름대로 本來의 모습을 유지하고있어 잘 保存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人間들이 손쉽게 接할 수 있었던 低地帶나 사찰같은 구조물의 주위와 開設된 道路邊 等の 自然環境이나 植生帶에는 生態界의 싸이클에 변화를 가져올만큼 훼손된곳도 적지 않음을 지적할수있다.

또 景觀의 主軸을 이루는 樹木들은 수10년~수100년간 風霜을 겪으면서도 곳곳히 버티어 살아남아 왔는데 갑자기 增加된 레저부의 人波는 이를 樹木에도 生存의 위협을 加하고 있다. 人間の 側面에서볼때 樹木들의 被害가 뭐 그리 대단한것이냐고 하여 일소에 부칠수도 있다. 그러나 이 思考는 人間優位의 개념에서만 成立될 수 있으며 人間이 自然의 一部로서 共存共生한다는 真理를 안다면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한방울의 물에도 오만과 소홀함이 용서될수 없음을 알게될 것이다.

樹木은 자연그대로에서는 말라죽는것은 아니다. 물론 대나무같은 60~100년을 1周期로 하여 枯死하는 특수한것도 있지만 대개는 수목의 수명을 無限한것으로 믿는 學者가 많다. 그렇다면 樹木의 壽命을 단축시켜 枯死에 이르게하는데는 몇가지 原因이 있음을 알게되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는 氣象이나 人爲的인 加害가 原因이되어 죽게 하는것과 間接的으로 역할하여 抵抗力을 減少시켜 老衰를 招來하는 環境의 惡化가 原因이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 樹木은 動物처럼 壽命이 한순간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5~10년씩 걸리면서 서

서히 죽어가는 만큼 早期의 적절한 판단은 起死 回生을 가능케할수도 있으므로 自然公園内に 심한 損傷을 입고 腐朽된 部位나 평 뚫린 空洞을 露出한채 그대로 버티어 서있는 樹木들에 科學을 이용한 人工的인 處理로서 (樹木外科手術) 維持回復을 이룩할수있다면 첫째는 國民保健과 景觀保全에 기여케될것ियो. 둘째는 病弱한 樹木이 傷處를 안은채 계속되는 氣象의 變化에서 病徵의 擴大로 内部에 숨겨진 연약함이 언제 부터지던가 쓰러지는 危險狀態가 慰樂人波의 바로 옆이나 머리위에서 發生할지도 모를 危害에서 救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自然公園内の 草木·돌 하나도 임의로 處理할 수 없는 法이 嚴存하니만치 枯死木도 景觀의 一部에 속하므로 함부로 伐採해 버릴수도 없을 바에야 살릴 수 있는 方法이 있는데 그대로 죽어가는것을 보면서 放任한다는 것은 自然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수도 있다.

다행히 天然記念物이나 保護樹로 指定된 老巨樹들은 수100년~1000여년동안 자라오면서 민족의 애환을 함께한 歷史의 산 証據로서 또 겨레의 氣像이며 아울러 寶物과 같은 위대한 遺産으로서 學術的으로 또는 資源的인 가치를 높이사서 국가에서 樹病學的인 診斷에 依한 樹木外科手術로서 이의 補完保護策을 강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外國의 경우 보다 50년이나 뒤져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수목들을 알뜰히 가꾸고 지킬 義務가 부여되어있는 동시에 後代에 所重하게 물려줄 責任도 있기에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단 이것은 天然記念物이나 保護樹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많은 人波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自然이라면 自然公園内の 老巨樹(그만큼 자랄려면 수10~수100년이 소요되므로)에도 이와같은 施術의 혜택을 아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自然發生的인 氣象의 害(日光, 寒暑, 乾濕, 風雨, 雪霧, 벼락등)와 動物의 害라 할 수 있

는 虫害와 鳥類, 山動物의 被害와 植物의 害로 간주되는 細菌(病菌)이나 蔓性植物에 의한 害와 人爲的 加害인 損傷과 煙害, 大量 이동에서 發生하는 먼지, 開發에 따른 地形變化에서 發生되는 地下水의 變異 汚染이 낳은 水質의 惡化, 地力의 衰退 등 어느것이나 早期에 發見하여 對策을 강구한다면 被害의 擴大를 最小限으로 줄일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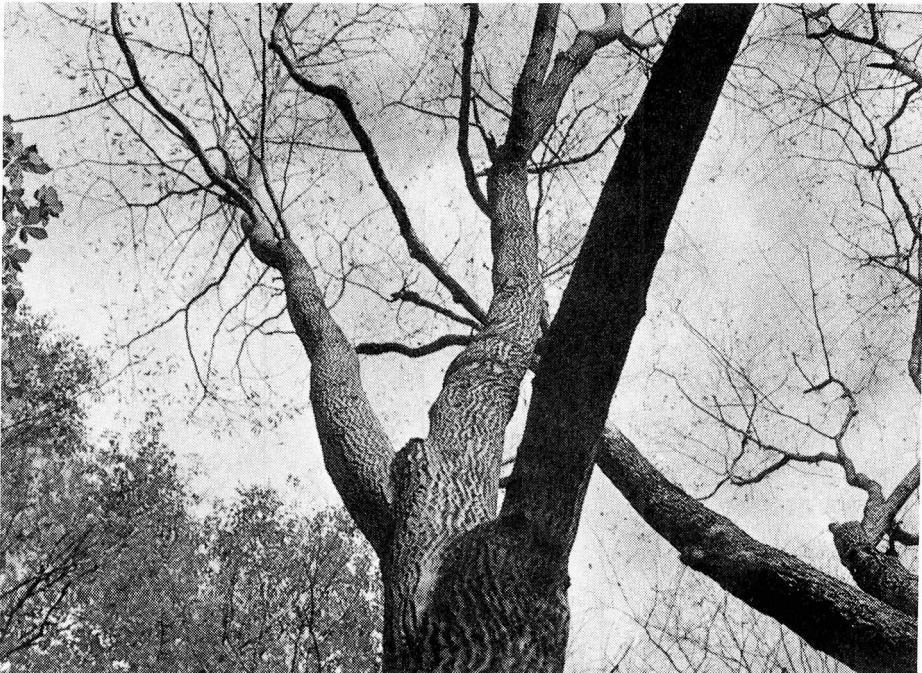
洪水의 外傷은 本能的으로 新生組織이 생겨나 再生의 현상을 나타내지만 心材部에 波及된 病徵은 自然治療가 不可能하다. 따라서 心材部에 波及되기 前에 再生力을 신속하고 건전한 狀態로 回復토록 유도하며 心材部의 病徵은 除去 補強하는 것이 外科的인 施行이라 할 수 있다.

自然公園에서 또 한가지 維持回復의 긴급을 요하는 것은 물려드는 人波는 나무그늘을 찾게 마련인데 樹木은 樹冠의 끝 部分이 根部의 活動部位로서 水分이나 양분 흡수와 함께 호흡도 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려 짓 밟아 놓으

므로서 다져진 地表는 空氣의 流通을 저해하고 빗물의 침투를 억제하며 地力을 弱화시켜 樹木의 老衰를 招來하게 되므로 現在 많은 지역의 巨木의 地表는 裸地狀態로 버려져있어서 이 피해를 加速化하고 있다. 이의 대책으로는 陰地에서도 잘 生育하는 地被植物로서 裸地를 커버하여 그전의 慰樂과 樹木의 衰退防止의 二重效果를 期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肥料木의 間植도 고려해볼 문제다.

自然公園內에 散在해있는 그많은 樹木에 補強保護策을 강구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람이 많이 물리는 公園부터 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부터, 피해가 큰 나무부터라는 점차적인 方法으로 實施한다면 소망하는 自然保全은 이룩될수도 있을 것이다.

내몸 아끼듯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錦繡江山을 내가 먼저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는 정성이 있을때 우리는 이에서 비롯되는 豐饒를 누릴수 있을 것이다.



망개나무